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11월 3일과 4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대대강화를 위해 거룩한 자욕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성국, 군관들인 한철호, 방정철, 손웅선, 김진철, 류정혁, 최동윤, 김철호, 김경일, 김봉철, 김영철, 유경선, 강철호, 김성진, 조성진, 김은철, 리성철, 김광혁, 리은주, 김두윤, 한수만, 리동일, 오영남, 리철남, 황성길, 박현국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나라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와 같이 일떠서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모든 전구들마다에서 련전패승을 거두며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소리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 울리면서 새로운 투쟁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거족적인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거창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대회참가자들과 우리 국가의 령토, 령해, 령공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사수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따듯한 마음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



내시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대중시, 대대강화사상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더 큰 승리,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적들과의 대결전을 앞둔 오늘의 정세는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며 군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대대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모든 대대들을 그 어떤 강제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강력적

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모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자기 단위에 내려가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꼭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그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대로 중대를 호랑이중대, 부자중대로 강화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땀을 심장으로 력력히 아로새긴 글발, 오늘도 우리 가슴에 그들의 맥동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수령님과 장군님따라 이어온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주기 위하여 불굴의 신

념으로 역세계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연설을 마치시자 백두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리치는 참가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대강화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대대지휘성원들이 아말로 애국자, 숨은 영웅이라고, 당중앙은 이런 동무들이 있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낭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10여년간 한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대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차넘치는 일당백의 전투대로로 강화하고 군인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꾸리는데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대대지휘성원들인 조선인민군 군관 방정철, 최동윤, 한철수, 김철호, 신에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나)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친히 수여하시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4일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대대강화의 주인, 쌍기둥이 되어 대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뿔어나나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꾸리는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대대강화의 주인, 쌍기둥이 되어 대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뿔어나나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꾸리는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건군사에서 세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대대를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정든 고향마을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합성이 터져올라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 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먼저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전번에 2항공역사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었다.

출발수속을, 대기홀을 비롯한 내부형성에서 편향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봉사망들과 시설물들이 역사공간과 조화를 이루

게 배치되지 못하였다고, 이대로 시공하면 어느 한 나라의 항공역사복사판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2항공역사건설을 선군조선의 상징, 우리 나라의 얼굴, 평양의 관문답게 마감하며 려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봉사망들과 시설물배치를 잘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내부마감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형성안들을 검토하여 다시 개작설계안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건설이

기본적으로 끝난 평양국제비행장 활주로를 돌아보시며 활주로의 포장정형과 각종 활주로의표식들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아득히 뻗어간 활주로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리용하시며 불멸의 자욕을 새기신 활주로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건설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활주로를 훌륭히 건설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남은 공사도 질적으로 잘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지구모형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평양국제비행장 맞은켠에 앞으로 새로운 항공역사와 활주로를 더 건설하고 수도중심으로부터 항공역까지 고속철도와 도로를 련결시켜 세계적인 비행장으로 전변시킬 구상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웅장화하려면서도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순안일대를 현대적으로 일신시키는것과 함께 평양국제비행장과 가까운 순안구역의 농장벌에 투색있는 온실들을 일떠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어리여있는 택암리와 원화리를 세계적인 표준농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개발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는 문제, 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는 문제, 착공시기와 로력과 자체보장대책문제 등 개발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과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마무리되리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반만년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어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의 역사가 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지난날 역사의 진실이 심히 외곡날조된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사는 자기 발전의 합법적과정을 거치지 못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세월의 락엽속에 민족의 님이 깔리우고 바다건너 침노한 외세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들이 파괴락탈된 우리의 민족사, 사대와 허무의 락엽속에 퇴색되고 외곡되어 빛을 잃은 유구한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하도록 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것이며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 그자체라고 하시며 조국해방위업실현을 위한 항일대전을 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외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그릇된 견해나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로 보신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잃었던 조국을 찾는것에 못지 않게 잃었던 역사, 외곡된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원시사회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거나 외곡된 우리 나라 역사의 기본 문제들을 새롭게 해명하거나 바로 정립하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에 의해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사가 바로 서게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동명왕의 묘를 황량한 그곳에 제비리고 왔었는데, 제일귀족공민들이 부모의 유골을 가지고 오듯이 그들도 틀림없이 시조묘를 옮겨왔을것이라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에 의해 역사적사실이 과학적으로 고증되어 동명왕릉이 개진될수 있었다.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왕 인것만큼 우리는 웅당 그를 내세워야 한다고, 동명왕릉을 고구려의 묘비제에 따라 품위있고 고구려의 맛이 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고 개진된 왕릉을 보시고는 이제는 시조릉 하나 모실줄 모른다고 후손들이 욕하지 않게 되었다고 만족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수령님 이시었다.



동명왕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제68(1979)년 5월】

주제34(1945)년 한해가 다 저무는 설날그믐날 한 일군을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해방이 되어 처음 새해를 맞는 인민들에게 밤 12시가 되면 민족의 님이 어린 평양종을 크게 울려주라고 하시었다. 소리없이 깊어가는 밤고요를 깨우며 울린 평양종소리는 민족생생의 장엄한 서곡이기도 하였다.

민족의 님은 자기 민족사를 잘 알 때 간직되게 된다는것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시조릉을 개진하는것과 함께 고구려의 기원년대를 정확히 밝혀주도록 하는데도 마음쓰신 그이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화석처럼 굳어진 기원전 37년의 고구려국가 기원설이 사라지고 200여년간이나 묻혀졌던 고구려역사가 되살아나 말로만 전해져오던 천년강국 고구려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론

증되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해박한 역사지식에 의해 밝혀진 민족사가운데는 살수대첩도 있다. 언젠인가 평안남도 안주시의 백상루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을

지문덕장군이 수나라 300만대군을 물리치고 전쟁총화를 여기서서에 의해 밝혀진 민족사가운데는 살수대첩도 있다. 언젠인가 평안남도 안주시의 백상루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을

것은 군사지리학전지에서 봐도 역사적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력사적자료를 가지고 론증하시면서 살수라는 강은 청천강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살수대첩이 과학적으로 해

명되게 되었던것이다. 민족사의 정립에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은 첫 통일국가 고려의 시조릉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이께서는 오랜 세월 여러 차례의 전란과 일제의 악착한 도굴로 그 문화유산이 많이 못하고 세월의 이기에 묻혀 버려진 왕건왕릉을 첫 통일국가의 시조릉답게 개진하도록 하시었다.

왕건을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왕건의 후손들이 그이께 왕씨가문 족보와 도장을 선물로 올린 감동깊은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다. 력사학자들이 상헌군 검은모루유적과 고인파 신인화석들을 발굴하였을 때였다.

조선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 고조선과 노예사회문제를 비롯한 해명을 기다리는 력사문제들을 밝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론증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력사유적발굴에 대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100만년전부터 평양일대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는 력사학자들의 견해를 긍정하시었다.

반만년민족사가 길이 빛나도록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열화같은 민족애는 전설로만 전해져온 우리 민족의 첫 시조왕인 단군이 실제한 인물이라는것을 고증하시고 단군릉을 찾아 개진하

록 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신지글자와 여러 유물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선민족은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고조선은 우리 나라의 첫 시조국가이며 노예소유자가였다고 하시었다.

일제가 단군관개세적까지 불태워버리면서 고조선과 단군을 력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책동하였지만 대대손손 내려온 단군숭배풍습은 없애버리지 못했다고 하시며 동서고급력사자료를 다 보시면서 그이께서 찾아내신 자료들은 고조선과 단군실체를 고증하는 귀중한 사료로 되었다. 단군릉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시고 정확히 감정하도록 하시어 단군과 그이께 왕씨가문 족보와 도장을 선물로 올린 감동깊은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다. 력사학자들이 상헌군 검은모루유적과 고인파 신인화석들을 발굴하였을 때였다.

조선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 고조선과 노예사회문제를 비롯한 해명을 기다리는 력사문제들을 밝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론증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력사유적발굴에 대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100만년전부터 평양일대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는 력사학자들의 견해를 긍정하시었다.

조선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 고조선과 노예사회문제를 비롯한 해명을 기다리는 력사문제들을 밝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론증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력사유적발굴에 대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100만년전부터 평양일대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는 력사학자들의 견해를 긍정하시었다.

전체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에 의해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세세년년 이어가는 자랑높은 민족으로 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우리 나라 5대장강의 하나로 불리우는 대동강. 예로부터 대동강유역은 강줄기가 넓고 물산이 풍부하고 기운이 따듯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민족문화의 발생지,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는 력사의 《대동강문화》로 기록하고있다. 대동강유역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모습이 많이도 변모되었다. 허나 오늘날처럼 대동강기슭이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기슭으로 만사람의 찬란을 모은것은 일찌기 없었다. 대동강기슭의 그 어느곳에 서봐도 인민의 부된 생활과 광만을 담아내고 솟아오른 수많은 건축물들을 볼수 있다. 육류들을 건너서면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이 자기의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놓고있으며 통라다리를 건너라면 통라물놀이장과 통라공룡어판 등이 있는 드넓은 통라

대동강반의 새 모습

인민유원지가 어서 오라 부르는듯하다. 청류다리를 넘어서면 회한한 문수물놀이장에서 웃음폭포가 터져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대동강기슭에 행복의 《꽃배》라 불리우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건설되어 교원, 연구사들이 그 《꽃배》에 오르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쌍기둥을 이루며 창공에 치솟은 살림집에 입사한 그들의 감격과 격정이 낮이나 밤이나 대동강기슭에 노래소리로 울려오고있다.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 없는 원아들의 궁전도 바로 대동강기슭에 솟아올랐다. 그 모든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시는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사랑과 헌신에 떠받들려 대동강기슭에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갈대만이 무성하던 문수벌에 현대적인 문수거리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통라다리와 청류다리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통라도에는 번듯한 5월1일경기장도 짓도록 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날도 끝없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불태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이어 대동강기슭에 이렇듯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대리이름까지 써주신 위대한 김정성주석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모란봉에 오르시어 모란봉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기 위한 현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통라도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어 수십차례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갈대만이 무성하던 문수벌에 현대적인 문수거리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통라다리와 청류다리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통라도에는 번듯한 5월1일경기장도 짓도록 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날도 끝없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불태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이어 대동강기슭에 이렇듯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계시는것이다. 인민을 위한 기슭, 후대들을 위한 기슭,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에 의하여 더욱더 번모되어가는 대동강기슭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대에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더욱 화려하게, 더욱 황홀하게 변모되는 대동강반이다.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래일의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과 회의를 넘쳐 인민들은 대동강반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려갈 찬란한 미래의 기슭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즐거움의 인민사랑의 환풍을 펼치며 집주인의 심정으로. 주제101(2012)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완공을 앞둔 평양의 창전거리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 유역에 건설된 초고층아파트의 맨 윗층인 45층에 오르신여 샴림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때였다. 샴림방의 방바닥도 일일이 살펴보시고 부엌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어 배란

는 바람소리를 가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램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호동의 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들에 바람막이를 잘할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행복의 창조자로 사랑받는 군대. 나라의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켜주며,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며 새로운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위성과과학자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예원과 육아원, 연평과학자휴양소, 개진된 5월1일경기장... 날마다 벼이 나고 흥하는 공화국의 모습이 비친 건축물이다. 불과 몇달사이에 회한하고 황홀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운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군인건설자들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적헌신과 위훈이 스며있는 창조물들을 보며 누구나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예로부터 군대는 무장집단으로 일러왔다. 노예소유국가때부터 생겨난 군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

하기 위한 폭력수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상비적인 무력집단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여왔다. 건설의 마치지보다는 전쟁의 종포성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미장칼보다는 방아쇠가 더 친숙해진 군인들이지만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르는 회한한 창조물들마다에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의 땀방울이 스며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해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국의 수호자분만이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기수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훈을 떨쳐왔다. 언젠인가 인민군인들이 건설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며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군대를 위해 부담을 지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가 나라를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고있다. 동서고급에 우리 인민군대와 같은 군대는 없다. 그렇다. 인민군대는 나라를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나오는 《우리 군대가 제일이다》는 말은 조국의 수호자일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아낌없는 믿음과 기대의 찬사인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통보는 《선군정치의 목표는 민중의 행복한 생활》이라고 전한것 아니겠는가. 오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위훈을 떨치고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집을 한채 짓고 발전소 하나를 건설해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령도자의 결심과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우는 견인불발의 의지와 기개로 조국의 만년대계를 건설하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인민군장병들의 위훈속에 공화국은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락원으로 훌륭히 변모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인들은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시며 인민의 복리를 가꾸는 첫자리에 인민군장병들을 세워주시었다.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

대시하는 위대한 령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인민군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맨 앞장에서 헤쳐가며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고있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령도자를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어느덧 마가울의 11월이다. 산에는 단풍이 붉게 타고 들에서는 농민들이 온한한 따뭇따뭇 가을 햇살을 수확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다. 대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열매는 이 세상 그 어디에나 있기마련인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선 령도자가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뜨거운 사랑과 정애에 의해 체로운 가을풍경이 펼쳐져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10월에만도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인민을 위한 멋진 창조물들이 련속 솟아났다. 과학자들의 락인 위성과과학자택지구와 연평과학자휴양소, 교육자들의 행복의 자살림집,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육아원과 육아원, 현대적으로 개진된 5월1일경기장... 곳곳에서 새집들이로 흥성이는 사람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아이

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지난해 단풍드는 계절에도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육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다에 나서시었다. 대동강을 따라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일군들과 함께 시내를 부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문득 바람소리가 들리누만라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이 귀를 강구였다. 정말 창문가에서 바람소리가 새나오고있었다. 창가에서 울리는 바람소리를 가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램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호동의 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들에 바람막이를 잘할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위 성과 학자 주택 지구의 일부

본사기자 김강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백일하에 드러난 《체제통일》 야망

요즘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통일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다음해 8.15를 계기로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통일현장》을 제정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가 하면 《실현》을 위해 27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는 《통일현장의 제정주제》를 《대통령》명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통일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북남관계가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게 흐르려는 지금 왕정같이 《통일현장》을 만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추태인가.

통일현장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겨레에게는 이미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담아 발

표한 통일현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결10대강령, 고려민주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며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6.15통일시대에 삼천리방공화국에 펼쳐졌던 경이로운 현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해나가는 길에 조국통일의 밝은 길이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하기에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을 민족공통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한결같이 공인하고있다.

현실은 이러한이제와서 그 무슨 《통일현장》을 새로 만든다는것은 무슨 소리인가. 거기에선 불순한 대결

기도가 깃들어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집권한 때로부터 입으로는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지 2년이 되었지만 북남관계는 전 《정권》때와 다름없는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습습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으며 당국과 보수언론, 극우강대단체, 인간스레기들이 총동원되어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에는 인간스레기들을 내세운 보수당파의 배라살포소동으로 인해 좋게 마련되어가던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고 북남사이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보수당파가 운운해온 《신뢰》와 《대화》란 미사령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골수에는 오직 대결홍심만이 팍 들어차있다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키는 저들의 동족대결책동을 반성할 대신 주제넘게도 한수 더 떠서 《통일현장》까지 운운하는것은 꼴볼견의 극치이다.

《통일현장》이라는데 담길 내용을 들여다보자. 보수당파는 《통일현장》에 《통일》이후 추후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어떤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내용을 담을것》이라느니, 《통일》(한국)은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북주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느니 뉘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

일》을 실현하려는 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남조선당국이 이미 마련된 민족의 통일현장, 통일대강을 의면하고 부정하면서 《통일현장》을 따로 조작하려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는 이것만 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다.

언제든 《통일대박》을 떠들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며 부산을 피우더니 이제 《통일현장》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것을 보면 남조선당국의 부질없는 체제대결야망과 책동이 극도로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겨레를 우롱하는 《통일현장》조작놀음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사이에서 이미 마련된 통일현장, 통일대강을 지지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 할 것이다.

본시기자 김철민

지금 온 겨레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남조선보수당파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것을 경고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회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성의를 더이상 우롱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파국적인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남조선당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 시키면서 《2차외국검속은 사실상 무산됐다.》느니, 《현재 (정부)가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느니 하고 떠들 애드고있다.

이것은 2차외국검속을 달가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무산시키려던 저들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배라살포소동으로 인해 북남대화 분위기가 위태로워지자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배라살포소동을 《정부》가 나서서 증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집

단자까지 나서서 《표현의 자유》나, 《법적구치가 없다.》느니 하는 구차스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스레기들을 음모로양으로 비호두둔하다 못해 10월 31일 또다시 인간스레기들을 배라살포로 내모는 무모한 반공화국대결명동이 벌어졌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이 《(정부)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자 남남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대북전단살포를 방관하는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잘못된 저들의 행동을 반성하지는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유감》이니, 《고위급검속무산》이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광해야 그로부터 북남사이의 총격전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배라살포소동으로 인해 북남대화 분위기가 위태로워지자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배라살포소동을 《정부》가 나서서 증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집

대화파괴자의 홍심

부추하여 10일에는 악질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북남생방의 방대한 무력기 침에 대해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배라살포소동을 감행하는 도발책동을 또다시 진행하였다. 공화국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감행된 배라살포소동은 결국 해상에서 이어 루지에서 북남사이의 총격전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배라살포소동으로 인해 북남대화 분위기가 위태로워지자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배라살포소동을 《정부》가 나서서 증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집

단자까지 번지는 대북전단살포를 방관하는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잘못된 저들의 행동을 반성하지는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유감》이니, 《고위급검속무산》이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광해야 그로부터 북남사이의 총격전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배라살포소동으로 인해 북남대화 분위기가 위태로워지자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배라살포소동을 《정부》가 나서서 증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집

배라살포망동이 계속되는 한

대하여 시비증상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며 남의 집안일을 시비증상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더우기 한밤중에 도적도양이처럼 남의 집마당에 그 가족을 비방하는 휴지장들을 뿌려대고 담벽에 락시장을 해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리라는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인간스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를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비호, 두둔, 조장하고있는데 제 집안도 제대로 관리할수 없는 무능한 《정부》, 상대방을 반대하는 배라

그 무엇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정부》와 천만번 대화한들 과연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있겠는가.

배라살포문제는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취재기처럼 출라다대는 인간스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북남사이에는 총격전까지 벌어졌으며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분위기도 처참하게 깨지게 되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배라

살포행위는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전쟁행위이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배라살포를 막기 위한 인민군대의 기구소멸전투는 마땅한 군사적대응으로 된다. 배라살포행위는 오늘날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민족적죄악으로 되고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남조선당국은 배라살포행위를 계속 비호두둔하면서 기만적인 《대화》라령에 매달리며 언론과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건주정이나 피울수록 저들의 대결적심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것이며 겨레의 통일념을 무참히 짓밟는 반통일죄악으로 하여 반드시 민족의 무자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시기자 서희



반공화국배라살포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평양시 서성구역 경정2동 62인민반 최현룡

《여기봉등탑》 - 불신과 대결의 등탑

지금 남조선당국은 경기도 김포지역의 이철기 씨 《여기봉등탑》 자리에 원래 의것보다 두배이상 되는 전방대를 세우고 거기에 반공화국심리전을 전문할 대형전판관까지 세우겠다고 공언하고있다.

이것은 동족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도발행위로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여기봉등탑》은 과연 어떤 등탑인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대표적상징물로서 지난 기간 북남사이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오던 군사적전장을 초래하여왔다.

남조선당국은 해마다 여기봉에 《종교》의 탈을 쓴 악질보수단체들과 호전광들, 조국과 부모처자를 배반하고 월남도주한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검증식》을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를 일삼아왔다.

이것은 자기 수렁, 자기 예도를 목숨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으며 2010년에는 《여기봉등탑》

에서 심리모략전이 계속될 경우 무자비한 조준격사격이 이루어질것이라는 엄숙한 경고가 나가게까지 하였다.

이제 여기봉에 500m에 달하는 이전보다 두배나 더 높은 전방대가 세워지고 거기에 설치된 대형전판관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주의제도를 헐뜯는 심리모략전이 벌어진다면 들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파국적인 재난은 이루어형언할수 없게 된다.

그런 《여기봉등탑》을 다시, 그것도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간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부추기를 받는 인간스레기들의 배라살포망동으로 하여 최대로 악화되어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언제 총들의 불꽃이 필지 알수 없는 초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화분위기 마련을 위해서라도 배라살포를 제지하기는커녕 계속 비호두둔하면서 《여기봉등탑》을

다시, 더 크게 세우겠다고 부산을 피우니 도발에 또 도발을 일삼는 남조선당국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이것이 과연 대화를 위한 행동인가, 관계개선을 위한 행동인가.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고 온 겨레의 비난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대결망동이라 지탄하지 않을수 없다. 북남관계를 한사코 대결과 충돌 나아가서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밖에 달리 는 평할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이제 제2의 《여기봉등탑》이 끝날세워진다면 그것은 남조선당국의 변함없는 대결의지를 더욱 날날이 드러내는 불신의 등탑, 치욕의 등탑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참에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군사적전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범죄적인 《여기봉등탑》건설놀음을 당장 걸어치워야 할 것이다.

본시기자 최명제

대결소동이 초래할것은 전쟁뿐

남조선보수당파가 북남관계를 망치는 대결망동을 일삼고도 모자라 오히려 제헌에서 《도발》이요, 《집속무산》이요 하고있다는 낮가죽이 두터워도 이처럼 두터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온 겨레가 북남사이에서 모처럼 고위급검속이 마련되는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살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것이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배라살포행위는 누가 보아

도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극도의 적대행위이다. 상대방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반공화국배라살포를 비호두둔, 조장해온 남조선당국이 그 입으로 《대화》를 떠드는것이야말로 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기만이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더우기 고위급검속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때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여야 함은 두말할것 없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요란스레 대결을 부르짖고 동족

을 향해 험담질을 해대고있으니 이제 대화를 하자는 자세인가. 오히려 대결을 무한정 지속시키자는 고약한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조선당국이 이루지도 못할 《체제통일》의 망상에 빠져 계속 인간스레기들을 부추기며 도발광란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초래할것은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배라살포망동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특특히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 서성구역 경정2동 62인민반 최현룡

《대북전단은 미군의 종이폭탄인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대북전단은 미군의 종이폭탄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대북전단》살포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혼란스럽다. 《대통령》은 열심 《대화》의지를 밝히고있지만 정작 대화를 위해 고지해야 할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를 하지 않고있다. 대화를 하고싶은것인지, 하기 싫은것인지 알수 없을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대북전단》살포단체들에게 전권공급하는것일까? 단지 지지세력의 리탈이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일까?

글은 《대북배라》살포가 명백한 항공범위위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항공범위 비행 제14조에 따르면 무인비행선중 자체 무게 12kg이 넘는 것이 7m이하의 경우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장치로 규정되어있다. 일부 반북언론들

은 이 규정을 들어 《대북전단》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의 길이가 7m이하라서 항공범위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은 풍선의 길이가 12m라고 스스로 이미 밝혔다. 따라서 《대북전단》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풍선이 분명하다. 통일부가 지적한 《시상에서 조 작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안된다》는 점》은 신고대상이나 아니냐와 상관이 없다.

만약 《정부》가 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했다면 《대북전단》살포는 항공범위위반이 된다.

이 경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대북전단》살포가 범법행위이므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항공범위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정부》가 전단살포를 막고싶을때만 막을수 있다.

둘째, 항공범위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북전단》살포를 막으려고 할 때 미국과 마찰

을 빚을수 있다는 점이다.

휴전선비행금지지역을 통제하는 주체는 국방부와 《한》미련합사이다. 전직자 통제권을 미국에게 돌려받지 않겠다고 예결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사실상 이 구역을 통제하는 곳은 미국임을 알수 있다. 즉 미국이 통제를 하는 지역에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미국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는 《대북전단》살포가 미국의 묵인아래 이뤄지고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대북전단》살포비용도 사실상 미국이 내고 있다. 물론 《정부》도 《대북전단》살포단체에게 지원금을 주고있지만 미국의 국부, 디펜스부, 미주주의기금 등이 지원하는 액수에 비하면 톨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대북전단》살포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심리전이며 《탈북자》단체는 그저 미국의 의뢰를 받은 하청업체에 불과할수 있다.

본시기자

오늘 북남관계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배라살포놀음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 남조선보수당파의 대결책동으로 인해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비호조종밑에 인간스레기들이 악질적으로 감행하는 배라살포소동은 북과 남사이에서 총격전까지 초래하였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초긴장상태에 있다.

그런데 조선민족의 머릿수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일촉즉발의 이러한 긴장상태를 음흉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는 악의 제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의 분열의 장본인, 세계평화의 파괴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내부에 분열과 리간을 조성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어부지리를 얻어왔다것은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음모로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장어를 조성했다.

돌이켜보면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에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불리한 심

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악질반통일대결분자들을 대결소동으로 내모는 등 온갖 비렬한짓을 다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배라살포소동은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장본인, 막후조종자도 다름아니 미국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라살포와 같은 심리모략전이 우리 공화국을 와해전복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고 공공연

한운동연합》이니 하는 모략단체대표의 감투를 집어 쓴 김성민과 박상학같은 인간스레기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자유확산의 전초병》이라느니 뉘니 하고 추어주면서 반공화국심리살포로 부추겼다. 또한 올해 2월 박상학과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범거지를 쓴 강철같은 인간추물들을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중심지인 《실리콘 벨리》에 끌어들여 USB, DVD 등

한편 미국은 공화국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방》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2006년 4월과 2008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부위는 《자유북

한운동연합》이니 하는 모략단체대표의 감투를 집어 쓴 김성민과 박상학같은 인간스레기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자유확산의 전초병》이라느니 뉘니 하고 추어주면서 반공화국심리살포로 부추겼다. 또한 올해 2월 박상학과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범거지를 쓴 강철같은 인간추물들을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중심지인 《실리콘 벨리》에 끌어들여 USB, DVD 등

한편 미국은 공화국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방》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2006년 4월과 2008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부위는 《자유북

한운동연합》이니 하는 모략단체대표의 감투를 집어 쓴 김성민과 박상학같은 인간스레기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자유확산의 전초병》이라느니 뉘니 하고 추어주면서 반공화국심리살포로 부추겼다. 또한 올해 2월 박상학과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범거지를 쓴 강철같은 인간추물들을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중심지인 《실리콘 벨리》에 끌어들여 USB, DVD 등

한편 미국은 공화국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방》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2006년 4월과 2008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부위는 《자유북

한운동연합》이니 하는 모략단체대표의 감투를 집어 쓴 김성민과 박상학같은 인간스레기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자유확산의 전초병》이라느니 뉘니 하고 추어주면서 반공화국심리살포로 부추겼다. 또한 올해 2월 박상학과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범거지를 쓴 강철같은 인간추물들을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중심지인 《실리콘 벨리》에 끌어들여 USB, DVD 등

한편 미국은 공화국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방》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2006년 4월과 2008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부위는 《자유북

남을 홍보기 전에 제 얼굴부터

최근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제2차 《북인권론회》이니, 《북인권법》의 《국회》 통과이니, 법무부에 《북인권기록보존소》 설치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배라살포방도를 부리며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다른쪽에서는 동족을 모해하는 《인권》 모략소동에 혈안이 되고있으니 그들의 면에는 북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여전히 쳐부실 《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남을 홍보기 전에 제 처지부터 들여다보라는 말이 있다.

과연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할 체면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몇가지 사실만 놓고보자.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남조선에서 자살자수는 무려 2배이상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 보고서에는 남조선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3명으로서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있다고 밝혀져있다. 남조선당

국이 발표한 《년별자살사도현황》에 의하면라도 《모든 연령대에 걸쳐 하루 6명정도 자살을 시도》하고있으며 로인 및 청소년자살률은 세계1위라고 한다. 남조선 언론들은 자살자가 분과 초를 다투어가며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그 주요원인 하나가 다름아닌 경제파탄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라고 밝히고있다.

한중도 안되는 재벌들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서민들의 피와 땀을 강그리 짜내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인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으로 근로인민들의 생활치는 날로 더욱 어려워져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 것이다. 현재 남조선의 가장 절망적인 빛은 사상 최대규모인 1 0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인권의 초보에 초보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한채 태어나서 무덤까지 빛속에서 헤매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이다.

이뿐이 아니다.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대학생들은 취업부지로 뛰어들어오는 학비

를 감당할수 없어 과외로동에 부대끼고있으며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이러한 비참한 인권실태를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도 저들의 처참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 문제에 대해 목이 터져라 고아내는것은 실로 비렬하기 그지없는 추태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맞장구를 치고있는것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용이 세상에 알려지는것을 막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인권의 동토대, 사람 못살 생지옥인 남조선의 인권 실태를 어떻게 하나 가리워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손바닥으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부질없는 반북 《인권》 소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게 되고 동족대결방식으로서의 저들의 추한 정세만이 더욱 드러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지난 10월 24일 미국과 남조선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가 미국에는 《득》이 되고 남조선에는 《득》이 되는 그야말로 불평등을 뛰어넘어 강도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문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법이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였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진의 강도적요구와 주구의 굴욕적협상능력의 진면모를 알수 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어리석은 주권포기의 대가로 남조선은 요젠 송아지마냥 미국에 더욱 끌려다니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미국은 몇년전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세우고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주력하고있다. 적어말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한 대가

조선반도주변에서 경쟁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 그처럼 전략을 다하고있으며 무엇보다 전략적요충지에 자리잡고있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다. 그 지레대가 바로 남조선의 군물수권을 저들이 철저히 장악하는것이다. 지금 미국전문가들속에서 이번의 협상결과를 두고 《현명한 결정》이니 뭐니 하면서 적극 환영하고있는 반면에 바로 이런 속내가 깔려있다.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리득도 얻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KAMD》와 《킬체인》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았는데 그 완성과정을 들여다보면 《F-35A》와 《페트리오트미사일》, 《글로벌호크》 등 핵심전력을 모두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즉 이번 협상은 남조선

이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액수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얻어낸 결과이다. 대표적 실례로 《F-35A》 구매계약으로 남조선은 7조 3 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미국측에 지불해야 된다.

어디 그뿐인가. 남조선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의 연기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남

조선배치와 《한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압박에 시달리게 된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패권을 노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개입전략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더 많은 혈세를 강권군에게 심겨받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이번엔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회를 애걸하는 남조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표면화하였지만 저를 뜻대로 일거양득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냈다. 반면 남조선은 그 대가로 커다란 경제적손실과 함께 정치군사적무권리, 주권포기와 같은 치욕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2020년대 중반이후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10월 24일은 군치일》이라고 개탄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본사기자 김련옥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사랑값에도 못가는 인간추몰, 쓰레기들이 그 무슨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반공화국패라를 계속 날리겠다고 악을 쓰고있다.

더우기 인터넷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통로를 통해 공화국에서 저지른 저들의 이젠 죄악들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자 더욱 당황망조하여 발악하고있다.

인간의 존엄이나 삶의 보람과 가치는 안중에 없으며 오직 저 하나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달아난 도주자, 변절자들의 극단적인 망동이다.

왜 그런지는 뻔하다. 배라살포가 중지되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막대한 재정원천이 끊기는것은 물론이고

남조선 《정부》로부터 반겨되는 돈줄도 잘리게 되기에 문이다.

즉 중풍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조명철이며 박상학, 김성민 등 인간쓰레기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놓고보면 공화

하고있다.

서훈이치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 형형색색의 그 무슨 《단체》라는것들을 조직하고 경쟁적으로 배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미쳐달려다니는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여 구

집경에까지 몰아가는 민족반역의 망동도 서슴치 않게 되었다.

사람값에도 못가는 인간쓰레기들에게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왜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제

가들이 기를 쓰고 날뛰는것은 더 크게 쫓아낼수록 내외 반동일세력들이 던져주는 고기덩이가 커지기때문이다.

만만 아는 추몰들, 혈육도 이웃도 지어 민족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이 바로 배신자, 변절자, 민족반역자들인 악질 《탈북자》들이다.

한중도 안되는 버러지같은 자들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달고있다.

술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어느 한 인사가 말한것처럼 그 쓰레기들을 풍선에 매달아 그자들이 좋아하는 미국으로 날려보내면 안된다. 아니면 깨끗이 소각해버려야 남조선인민들도 편안해진다.

본사기자 김정혁

미국에서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탄압받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보안

관찰법》 폐지를 주장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미국정부가 북에 대하여 사상 등을 감시하여 계속 통제 목적물에 만들어진 이 《법》은 보안관찰자가 3개월간 주요활동과 여행, 거주이전을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하며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악법이라고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관찰법》 폐지를 주장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미국정부가 북에 대하여 사상 등을 감시하여 계속 통제 목적물에 만들어진 이 《법》은 보안관찰자가 3개월간 주요활동과 여행, 거주이전을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하며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악법이라고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돈버러지들의 말로는

국에서 부모치와 친척, 친우들을 비롯한 열사람들은 안중에 없이 돈맛을 알고 사기협박, 부하방랑을 일삼아 달아난자들이다.

그런 자들이기에 남조선에 물러가서도 한푼의 돈을 더 받아먹겠다고 공화국에서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고 지어내어 언론들에 공개

차한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서인 것이다.

돈에 환장한자들이 가는 길은 배신과 변절, 반역이고 그 종착점은 개죽음이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변절한 인간쓰레기들은 지금 이 시각도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품을 악랄하게 비방증상하고 북남관계를 전쟁

제》와 압살책동을 벌려왔어도 더욱 승승장구하기만 하는 공화국을 내무로부터 하해시켜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도 실현하는데 앞잡이로 써먹기 위해서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렇게도 배라살포를 중단할때 대해 규탄하고 막아나서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쓰레

이 공무원들의 퇴임후 생활을 외면하고 년금계약등을 강행한다면 800만 공무원, 교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국이 제벌의 편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할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공무원과 교원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에 나설것이다

남조선공무원, 교원 12만여명 당국의 년금계약철회에 항의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일 서울 의도에서 당국의 공무원년금계약철회에 항의하는 대규모집회가 벌어졌다.

남조선강원도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전지역에서 모인 50여개 공무원, 교원단체 소속 성원 12만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기본당사자인

공무원, 교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년금법》개악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공무원년금을 줄여야 할 리유로 재정적자를 운운하고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돈을 탕진한것은 누구인가, 《정부》가 말아먹고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라는것인가고 절규하였다.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 년금철회가 한결같이 년금계약에 파손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재벌보호법의 배를 불리워주기 위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모두가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당국의 년금계약철회를 저지시키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이 공무원들의 퇴임후 생활을 외면하고 년금계약등을 강행한다면 800만 공무원, 교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국이 제벌의 편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할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행부의 노태와 비판의 절규

《정부》와 권력자들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찌 《세월》호에 뒀던 어린 생명들뿐이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어린이보육을 위한 《최상의 방도는 입양》이라는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해마다 평균 1 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해외로 팔려가고있고 그 수는 모두 20만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한심한 보육조건으로 하여 남조선어린이의 70%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좋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겨울에 발가벗겨

이 한명당 년간에 드는 비용은 4년제 대학등록금과 같다고 한다.

가난에 쫓겨 정마저 잃어 버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방랑하는 어린이들이 현재 8 20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평균 한달에 30명 이상의 갓난아이가 휴지통, 쓰레기장, 길바닥에 신문지,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지고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해마다 2만여건, 그중 절반이 7살아래 어린이들에 대한 강간행위이며 해마다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되고있다.

《정부》와 권력자들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찌 《세월》호에 뒀던 어린 생명들뿐이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어린이보육을 위한 《최상의 방도는 입양》이라는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해마다 평균 1 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해외로 팔려가고있고 그 수는 모두 20만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한심한 보육조건으로 하여 남조선어린이의 70%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좋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겨울에 발가벗겨

가난을 참다못해 자식들과 함께 그스 목숨을 끊는 부모들이 날로 늘어나 많은 어린이들이 생즉음까지 당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남조선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수출국》, 《어린이보육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는 바로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과 이치러진 후대판이 낳은 대표적실례이다.

《니희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호소를 하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예원을 하고 무릎을 꿇어도 진정한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세월》호침몰과 함께 생애같은 아들을 잃은 유가족어머니의 이 부르짖음은 자식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남조선사회에 대한 준절한 타매였다.

끝없이 울리는 《세상에 풀없이 울리는 《세상에 풀없이 울라》의 노래와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어요》 라는 비통한 절규는 바로 아이들의 천국과 지옥을 명백히 조명해주는 북과 남의 생동한 현실이다.

김연희

대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자, 《대통령》을 조사하라!

서울에서 범국민추모집회, 각계층 군중 2만여명 참가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200일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범국민추모집회가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시민들, 가정주부,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2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가 있는 때로부터 200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고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개탄하였다.

《국회》에서 있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대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내세운 오늘의 투쟁을 끝까지 버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인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성역없는 진상규명, 《대통령》을 조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그들의 투쟁을 각계가 지지성원하였다.

서울광장에 이른 그들은

또다시 집회를 가지고 대참사의 진상을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날 경기도 안산의 합동본

향소에서도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가족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추모집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시 초

원 아 들 의 요 람 행 복 의 집 이 여 !

보 초 병 과 아 이 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에게 넘겨줄 그 시각을 기다리며 어제날의 군인전설자 병사 오늘은 보초를 서고있었네

원수님의 명령 받아안고 초소를 떠나온지도 어언 너날 아이들의 궁전을 덩실하게 일떠세운 궁지 마음도 호뭇한데

사람들 너도 나도 찾아와 들어가 보지는 못해도 구경을 하자네 그 즐거운 《성화》에 보초병도 기쁨의 《시달림》

행복의 창조자 행복의 보위자답게 믿음직하게 보초소를 지켜서있네 《앗! 누구...》

보초병은 그만 말끝을 맺지 못했네 그 앞에 나타난것은 한 처녀의 두손에 오롱오롱 매여달린 네댓명의 꼬마들

《무슨 일입니까? 처녀동무》

김영일
보초병의 《판대한》 물음에 처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대답하네 《우리 애들이 새 집구경을 가져가고 너 무 풀려서...》

아이들이 웃고 떠든다

제비야, 우리와 함께 살자

김송림
황홀함에 이끌려 신비함에 이끌려 육아원의 곳곳을 돌아보는데 벽화속에 깃을 펴고 날아에는 제비들 원아들 반기네

지금쯤 마스한 곳을 찾아 저 멀리 남방으로 날아갔나 했는데 어이하여 떠날념을 얹고 여기 궁전에 남아있을가

순박한 농민에게 박씨를 물어다 행복을 안겨주었다는 사랑스러운 제비 바로 네가 아니냐

원아들 터치는 행복의 웃음 기쁨의 그 소리에 이끌렸는가

《아저씨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맛있는 새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보초병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네 《어서 들어가 봐라, 너희들이 살 집 인데》 꼬마주인들이 활개치며 정문을 통과 하는데 보초병 병사는 거수경례를 하고있 었네

제비야, 우리와 함께 살자

김송림
아이들의 이 궁전 떠나고싶지 않아 행복의 보금자리 여기에 펼쳤는가

지지배배 노래하며 날아에는 귀여운 제비들이 예가 바로 너희들이 꿈꾸던 세상에서 제일 마스한 곳 아니더냐

복받은 원아들 제비를 반겨 살오른 두손 높이 뻗쳐든다 제비는 원아들 머리우를 스쳐날며 부리움에 굶어보는 전설속의 궁전 평양육아원, 애육원

오, 해님의 따사로움속에 사시절 기쁨의 웃음 꽃피는 여기 원아들과 함께 고운 꿈만 꾸고싶어

사시찰 철 원아들과 함께 있는 제비

원 아 들 의 집 주 소

김래룡
육아원과 애육원 그 부름은 다 잊은듯 그저 나의 집이라 부릅니다 한껏 행복에 넘친 원아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의 집이랍니다

집이 없어 락염처럼 땀나는 고아의 설움은 세상이 알아도 제일 멋진 집에서 사는 그런 원아들 기쁨 세상은 다 모릅니다 아, 세상에 없는 집 원수님이 주셨습니다

아 버 지 !

김래룡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고아라 불려야 할 아이들이 누구나 목껏 터치는 말이 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어요!

궁전같은 육아원과 애육원 방마다 문을 열면 기다린듯 쏟아져나오는 기쁨 그 기쁨 아버지가 주신거랍니다

원아들은 제비를 부르네 제비야, 우리와 함께 살자

김래룡
복이란 복은 다 있어 남부러울것이란 하나도 없는 집 이 집이 없이 이 집을 떠나 원아들의 웃음이 있었습니까 원아들의 행복이 있었습니까

오늘에도 매일에도 원아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집 운명을 맡기고 사는 마스한 집 그들이 안겨사는 행복한 삶의 집주소는 아버지원수님의 품이랍니다

아 버 지 !

김래룡
하늘의 별도 부러워 창문가에 바루 다가드는 그 요람도 아버지가 주신거란다

신나는 놀이감 재미난 그림책도 물놀이장의 오리배 커다란 등근 뿔도 맛있는 빵이랑 우유랑 다 아버지가 주시었다고 으시대며 뽀내는 사랑스런 원아들

아버지! 매일씩 부모를 잃어 불러보고싶어도 부를수 없었던 그 부름 것처럼 안기고싶었던 그 품 아, 그 아버지가 원아들에게 있다

말을 갖 떼기 시작한 어린 철부지도 사랑의 이 집에서 아버지란 말을 던 지 배운다 요람속의 쌍둥이자매도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속에 잠이 들었다

부모없는 설움 다 잊고 살라고 슬하에 아들딸로 하나 둘 품으로써 원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원수님 그들에게 제일 좋은 집을 주게 되었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떼듯 기쁘다 하신 원수님

그이 아닌 그 누가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줄수 있으랴 그이 사랑이 아닌 그 어떤 사랑이 원아들의 설움과 눈물 다 가져 얼굴마다 행복의 웃음 지어줄수 있으랴

복중의 복을 플라주신 이 세상에 제일 큰 아버지의 사랑이여 부모없는 원아들이 땅엔 없으랴 제일 친근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모신 아이들아, 너희들은 육동자 육동녀들 이여랴



《아버지!》
《내 아들이!》
거지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호느끼는 아들, 자식의 등을 어루만지며 격정을 금치 못하는 아버지... 부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행복》을 찾아 방랑하던 아들이 모진 고생끝에 후회하며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데 대한 전설을 소재로 하여 17세기 네델란드의 화가 램브란트가 창작한 유화 《불호 자식 돌아오다》이다.

수십년전, 나의 아버지가 어디선가 구해온 이 유화작품은 오늘에도 우리 집벽에 걸려있다. 생전에 아버지는 때없이 이 유화작품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있곤 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눈가에에는 이슬이 맺혀있었다.

《 불 호 자 식 》 도 찌 쫓 이 안 아 주 는 어 머 니 를

당시 10대의 철부지소년였던 나는 아버지가 어찌서 그 유화작품에 그렇듯 넋을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였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에게 그 그림이 그렇게도 좋은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없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하였다. 썩 후날에야 나는 아버지가 그 그림을 통하여 두고 온 고국을 생각하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따지지 않고 넓은 품에 안아주는 이북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에 감동되어 유화 《불호 자식 돌아오다》를 구해가지고 와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학수고대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눈뿔은 가슴을 진정하며 비행기승강대에서 내리는 나를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을 때 짙 짙 놀랐다. 왜 그리든 그랬는가, 남들이 허리를 조이며 강성국가건설에 피와 땀을 바칠 때 저만 잘살겠다고 어머니조국을 버렸던 배운명덕한이니 최고랑을 채워도 아무말도 할수 없는 내가 아닌가, 생각외의 현실에 맞닥뜨리고보니 너무도 충격적이었지 않을수 없었고 삽시에 죄책감은 온몸을 더욱 조여 정말 참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어머니조국은 발을 잘못 디디어 천길나락에 굴러떨어졌던 나에게 생명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박정숙녀성은 남조선편을 떠나 그처럼 돌아왔다는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나는 박정숙녀성과 같은 과거를 가진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의 최계순녀성도 만나보았다. 그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국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을 뜨겁게 품어주는것이

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의 죄 많은 과거를 잊을 대신 재생의 삶을 안겨주시고 대대같은 은정을 안겨주시길 저 어찌 알았겠습니까.》

경에하는 원수님의 뜻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에 돌아와보니 남조선에서 귀가 아를 정도로 들린 바와는 달리 자식들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사업하고있었고 제 집에서 생활하고있는것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그런데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딸이 자기에겐 어머니가 없다고 하면서 막 내왔다. 동행한 일군이 자식들에게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새 생활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말해주어서야 딸은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 내어 울음을 터졌다.

최계순녀성은 조국을 등졌던 죄인, 남아키운 자식들도 철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한 자기를 한없이 넓은 품에 따듯이 품어안아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정말로 원수님의 품은 다스린 정으로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모두 안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품이다. 하늘같은 그 은덕을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번 북행길에 나는 인간의 행복은 인덕정치의 대화원,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유화 《불호 자식 돌아오다》는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그림으로만 대하게 되지 않는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 온 겨레가 안겨 부된 삶을 누리려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곤 한다. 재가나디동무 리수미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부 도

평양민속공원은 이름있는 종의 유물을 넣어두고 그를 추모하는 건축물인 부도의 모형들도 있다. 부도는 8각정자형과 돌종형으로 나누는데 받침돌, 기둥돌, 유골을 넣어두는 사리집돌, 부도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류충성 평양민속공원 학술연구실 실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부도를 만들기 시작한것은 세나라시기 말부터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중에서 가장 오래 된것은 후기신라의 대표인 부도로서는 불국사부도, 려거화상부도, 대안사적인선사부도, 쌍봉사철감선사부도, 봉암사시종대사부도, 진전사부도, 연곡사부도같은것들이 있다.

중에서 려거화상부도는 844년에 만든것으로서 지금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8각탑형부도들 가운데서도 제일 오랜 부도로서 8각탑형부도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고 한다. 그런가하면 강원도(남) 양양군에 있다는 진전

사부도는 탑의 4각기단부와 부도의 8각기단을 절충한 특이한 형식의 부도라고 한다. 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쌍봉사철감선사부도는 몸돌의 사천왕상과 다른 부도에 없는 공양비천상들은 물론 기단 아래돌의 구름무늬와 사자, 옷돌의 띠꾸무늬, 가운뎃돌과 몸체교입돌의 가룡뿔, 지붕돌아래면의 비천들을 모두 돌출해내놓는 독특한 형상하여 매우 생동하다고 한다. 특히 몸체에는 목조건축의 요소들이 실감있게 형성되고 부도의 부분들 호상간 비례와 균형이 잘 제였으며 세련되고 섬세한 조각솜씨로 하여 비록 돌에 새긴것이지만



된 쇠붙이때쪽 오목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팔안쪽을 따라 팔굽을 지나 엄지손가락 바깥쪽까지 부드러운 솔로 피부가 분홍색이 될 때까지 솔질을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차례 한 번에 5~6번씩 반복하면 감기를 예방할수 있다. 본사기자